

“JY, 충분히 반성… 경영 전념하게 선처를” 국민청원 등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처 호소’ 靑 청원 2만명 육박
“살아있는 권력의 부탁 받은 것
죗값 충분히 치뤄…구형 부당”

국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놓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이제 이 부회장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당부를 담고 있다.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검토 중이며, 1만9000명 가량 동의가 진행된 상태다.

청원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탁을 기업인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안타깝고 죄은함이 많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측으로부터 9년을 구형 받은 데에 부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함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부회장이 지난 몇년간 수사와 재판, 옥고까지 치렀고, 어려운 난국에도 수사와 재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리면서 반성하고 사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충분히 죽값을 치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이 그동안 국내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청원인은 해외 출장에 나가 느끼는 국가적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대한민국 국격 상승에 이바지한 공로를 들었다. 삼성을 전자부문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부분을 담당케 한 데에도 고

(故)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회에 기여한 점도 설명했다. 이미 조세에서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으며,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삼성이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부족한 마스크 원재료를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고, 제조사들이 마스크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노하우도 전수했다고 호평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자신이 국민의 한사람이자 교육자 중 한사람이라며, 삼성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재판에서 애국심과 효도심으로 호소하는 이 부회장을 보며 가슴이 찡했으며 혼자 많이 울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등 혐의로 기소돼 1년여간 실형을 살았다.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또

다시 1년여간 재판을 받았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의 준법 경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녀들에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철탑 농성 중이던 김용희 씨와 합의하는 등 노조 불가 방침도 철회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시스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는 이달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재판이 4년여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것. 다만 검찰이 수사팀의 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한 상황, 삼성은 한동안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안전환경에 3년간 5000억 투입

대산공장 재가동 맞춰 강화대책 추진
관련 전문가 늘리고 자문단도 운영

롯데케미칼이 향후 3년간 안전환경부문에 약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롯데케미칼은 3일 국내외 전 사업장의 안전환경 기준을 글로벌 틈 수준으로 재정립하고, ‘업(業)의 본질’인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환경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산공장 NCC(납사분해공정) 재가동에 맞춰 김교현 대표이사는 특별 안전환경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임직원들의 안전환경에 대한 철저한 의식 개혁과 행동 변화를 강조했다.

김교현 대표는 “안전환경이란 화학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업의 본질 그 자체”라며 “안전환경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과 성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성과를 불인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소한 타협도 없을 것”이며 “2021년을 가장 안전한 기업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환경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가장 안전한 회사, 친환경 가치를 실천해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친환경화학소재회사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이 발표한 조직, 안전투자, 제도개선, 내부역량 등 중점 추진 대책은 4가지다.

먼저 향후 3년간 약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안전작업관리 시스템, 설비 예지정비 시스템 등 DT(디지털전환) 기반 공정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환경 리스크 대응력을 확대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안전환경 이행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안전환경 체계 고도화를 위해 각 사업장 안전환경 전문 인원을 약 2배 이상 확대하며, 공정 설비 안전중심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장 안전환경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

정이다. 안전환경 제도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파트너사의 안전전문기관 인증 취득 지원 등 파트너사 자체 관리수준을 한층 높여 안전환경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부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정안전을 위한 기술 과정을 개발하고 의무화해 사내전문가를 지속 양성할 예정이며, 현장 간부의 안전환경 자격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파트너사 안전 관리자 교육을 지원해 안전 역량 의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장의 안전환경설비 투자와 운영 제도 개편 등 역량 강화를 조속히 실시해 안전환경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강화된 규정 및 시스템 등을 글로벌 사업장으로 전파해 모든 활동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근무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디스플레이 벤더블 CSO 패널.

/LG디스플레이

“게임할 땐 구부리고, TV 볼 땐 평면으로”

LG디스플레이, CES 2021서
‘벤더블 CSO 패널’ 최초 공개

평면화면을 넘나드는 디스플레이가 나온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11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CES 2021’에서 48인치 벤더블 CSO 패널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4일 유튜브 채널에 티저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패널은 OLED 화면을 1000R까지 자유롭게 구부렸다 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평면으로 쓰다가 필요할 때 커브드로 사용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별도 스피커 없이 패널 자체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CSO’ 기술을 적용해 소리를 이용한 현장감을 극대화해준다. 특히 커브드일 때에는 소리를 더욱 집중해줄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 CSO보다 진화한 초박형 필름 CSO 기술을 적용하고 소리를 만드는 부품인 익사이터 두께를 9mm에서 0.6mm로 획기적으로 축소해 완성도를 높였다. /김재웅 기자

5G가입자 천만시대… 불붙은 ‘요금 경쟁’

4만원대 등 요금제 인하 움직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19년 4월 세계 첫 상용화 이후 1년7개월 만의 성과다. 올해는 5G 대중화를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정보통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국내 5G 가입자는 1093만 2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998만3978만명 보다 94만 8385명 증가한 수치로, 5G 상용화 이후

월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이다.

국내 5G 가입자의 가파른 상승세는 지난해 10월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기존 아이폰 이용자들의 교체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505만2111명으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최초로 500만 가입자를 넘어섰다. 뒤를 이어 KT가 333만4752명, LG유플러스가 254만853명을 기록했다. 알뜰폰(MVNO) 5G 가입자는 4647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5G 가입자 수는 120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5G 대중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5G 가입자 확대를 위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하며,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중 5G 요금제는 월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3만원대 요금제와 월 200GB를 주는 5만원대 요금제 2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는 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제 경쟁 신호탄을 쏜 바 있다. LG유플러스 또한 저렴한 요금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최대 200만원 혜택 할인 행사

이달까지 ‘한마음 동행 페스티’ 진행

LG전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과 새해를 맞아 극복 의지를 함께한다.

LG전자는 이달 31일까지 ‘한마음 동행 페스티’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전국 LG베스트샵 등 행사 제품 구매 고객에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TV와 냉장고, 에어컨과 워시타워, 건조기와 전기레인지 등 15개군 90여종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김재웅 기자